

여성노동자 동거 왜 느냐

외로움과 가난이 쉽게 동거로 이끌어

가급적 혼인신고해 일방적 피해예방 필요

얼마 전 결혼 비용이 여자는 평균 천만 원, 남자는 칠백만 원이라는 발표가 보도되어 놀라게 하더니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딸 결혼 빚 때문에 자살한 부모 이야기까지 나와 새삼 결혼 세대에 씁쓸해진다.

‘혼수 준비에서 결혼까지’, ‘웨딩 스케줄’, ‘결혼 올 가이드’ 등 이달치 여성 잡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요란하고 친절하게 혼수 장만의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먼 남의 이야기인 경우가 있다.

여성 노동자, 그 중에서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일부는 결혼식을 미뤄 둔 채,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하고 있다.

구로 공단 내 별집 혹은 닭장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다 보면 이웃과 대면하고 친하게 지낼 여유가 없어도 옆집, 앞집으로 동거하는 부부를 볼 수 있다. 그들이 뚜렷한 형식없이 같이 살고 있다는 흔적은, 대개 혼자 살던 자취방에 짐 몇 개 없어 생활을 합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 등에 있어 자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서 볼 수 있다.

“객지생활 하다보면 사람 정이 그리워요”

독산동에서 8만원짜리 사글세를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은 “같이 자취하던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해서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만든

‘순영이의 사랑 이야기’는 한 여성 노동자가 디스코장에서 만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겪는 갈등을 그린 슬라이드인데 많은 노동자들에게 상연되어 큰 공감을 얻었다.

주위에도 그러한 친구들이 꽤 있다는 28세의 한 여성 노동자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구로동의 4백 명쯤 되는 봉제회사인데 한 반 60명 중 대략 여덟에서 열 명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영등포에서 4백50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객지에 나와 사회 생활하는 것이 외롭고 생활에 별다른 즐거움이 없어 조금만 잘해 주는 남성을 만나도 쉽게 정을 주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장래에 대한 설계가 불분명한데도 성관계를 갖거나 어렵지 않게 동거에 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모들께 인사도 했지만 돈이 없어 결혼식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자 무크지 <청춘>에서는 노동자들의 동거의 원인을 ‘외로

움’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앞에서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는 것도, 구로 공단이 대개 연고 없이 상경한 노동자가 많은 데 비해 안양 등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생활권과 결합되어 집이나 친척집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신중절 등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몫

한국여성노동자회 간사 윤혜련(28) 씨는 “왜 동거를 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사랑하기 때문

기 쉽다. 장래 계획이 불분명하므로 임신이 부담스럽고 몇 차례의 중절로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사 박선희 씨는 “동거를 하는 경우 서로에 대해 책임감이 적고 결혼에 소속감을 안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희박해 대개 아이가 생겨야만 출생 신고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담자 중에는 혼인 신고를 했을 때조차 소위 ‘머리를 올리고 살지 않는 부부’임을 강조하곤 합니다”라고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몫이 된다. 남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따르지도 않고 건강상의 피해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박선희 씨는 “가급적이면 동거를 말리고 굳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 신고라도 먼저 할 것을 권합니다. 식이 중요하냐는 반론도 있지만 의식을 밟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 대해 약속을 한 것이고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라고 당부한다.

올바른 이성관·결혼관 정립이 시급해

삼협정기 노동조합 부위원장 변정옥(26) 씨는 “혼수품이 적다, 조건이 어렵다 따지는 결혼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믿고 동거를 시작하는 노동자들은 요즘의 세대에 비춰볼 때 오히려 순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여러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려고 동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결혼을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에 대한 환상 때문이죠”

명 규모의 전자 회사에 근무했던 다른 한 여성 노동자는 “20명 되는 라인에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양에 있는 전자 회사에 근무하는 한 여성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동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적은 편으로, 3백명 정도 되는데 열 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그 혼한 통계 수치 하나 나와 있는 것 없고 편차도 크지만 여성 노동자에게 동거는 비근한 결혼 풍속 중 하나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동거율이 높은 데 대해

움, ‘경제적 이유’ 순으로 들었다.

전국 노동자 신문은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다보면 무엇보다 그리운 것이 사람의 정이다. 조그마한 정에도 흠뻑 젖어버려 쉽게 동거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려고, 당장에 결혼식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또 일생에 한 번 결혼식만은 남들처럼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결혼을 미룬 채 계속 동거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앞의 한 노동자는 “동거하는 친구 중 80~90%가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던 경우”라고 말해 무엇보다 ‘외로움’이 동거의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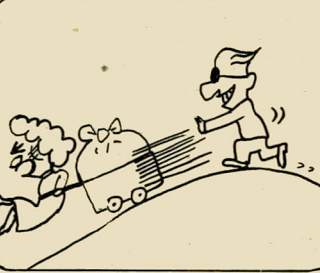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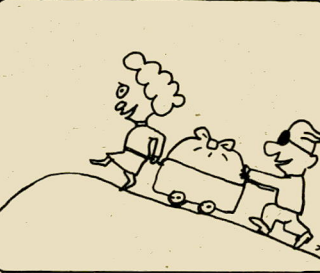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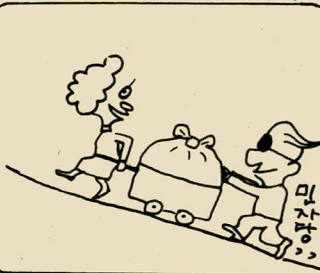
에, 생활비를 줄이려고, 돈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결혼을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이성에 대한 환상 등 비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생겨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어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갈만한 곳도 변변치 않고 쉽게 접하는 것은 디스코장과 선정적인 말과 몸짓으로 자극하는 DJ 다방 정도여서 즉흥적인 생각에 이끌리게 됩니다”고 한다.

동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남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해 모든 문제를 둘만이 해결해야 하므로 사소한 불화에도 헤어지



여성정치참여



앞에서 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게 좋겠지요.”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노동 조합 활동을 하거나 의식 있는 노동자들 중 교회나 지역 주민 회관을 무료로 빌려 동료들의 축하속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결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이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바른 결혼관의 정립이야말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또한 노동 조합 활동이나 취미 소모임 등을 통해 향락적인 퇴폐 문화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정원/자유기고가>